

朝鮮時代 國葬都監儀軌의 班次圖 研究(Ⅱ)

慶州專門大學 衣裳科

助教授 金 貞 振

淑明女子大學校 衣類學科

教授 李 善 宰

目 次

- I. 序 論
 II. 國葬都監儀軌의 發軔班次圖 分析
 III. 國葬都監儀軌의 發軔班次圖와 嘉禮班次圖의 比較
 1. 全體 構造
 2. 儀 仗
 3. 儀禮服
 IV. 結 論
 參考文獻
 ABSTRACT

I. 序 論

朝鮮時代에는 王室이나 國家에서 거행되는 世子 및 王妃의 冊封行事, 世子 및 王의 結婚, 國葬, 山陵의 築造, 王后의 尊號 및 先代王과 王后의 諡號를 올리는 行事, 建物의 築造, 功臣의 冊封行事, 御室의 改造, 御容의 圖寫, 親耕行事 등을 치르는 論議過程, 儀式節次, 進行, 行事가 끝난 후에 그 行事 有功者들의 褒償에 대한 諸般 事項들을 자세히 記錄해 놓았는데 이것을 儀軌라고 한다.

이러한 國家行事가 있을 때에는 그 行事を 主管하는 臨時官廳을 設置하였다가 行事가 끝나면 이를 파하였는데, 이러한 臨時官廳을 都監이라 불렀다. 都監은 行事의 名稱에 따라 冊禮都監, 嘉禮都

監, 國葬 및 禮葬都監, 山陵都監, 祔廟都監, 奠崇都監, 諡號都監, 封陵·遷陵·封墓都監, 營建都監, 錄勤都監, 金寶改造都監, 影幀都監, 瑋源譜略修正實錄廳, 祭器都監, 迎接都監都廳 등이 있으며, 이 都監에서 행한 行事名에 따라 儀軌의 具體의인 名稱이 個別的으로 붙여졌다.¹⁾

이 儀軌들은 朝鮮時代의 歷史, 法制, 社會, 經濟, 禮俗, 思想, 藝術分野 등을 자세히 把握할 수가 있어 귀중한 研究資料로 많이 利用되고 있다. 특히 嘉禮都監儀軌나 國葬 및 禮葬都監儀軌, 祔廟都監儀軌 등에는 儀式的 重要한 場面을 그림으로 나타낸 班次圖라는 것이 添附되어 있어 繪畫史料로서는 물론 服飾史料로서의 그 價値가 매우 높다 하겠다.

1) 朴炳善 編著, 朝鮮朝의 儀軌,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5, p.8.

이에 대한 先行研究들로는 白英子(1985)²⁾를 비롯하여 劉頌玉(1986),³⁾ 이경자(1977),⁴⁾ 白英子(1977),⁵⁾ 김혜경(1985),⁶⁾ 박성실(1991)⁷⁾ 등이 있으나, 國葬都監儀軌에 대한 研究는 아직 전무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國葬都監儀軌가 갖고 있는 發靱班次圖의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으며 나아가서 선행연구된 嘉禮班次圖와의 비교 연구도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研究의 자료로 선택하게 되었다.

따라서 國葬都監儀軌의 發靱班次圖에 나타난 服飾과 儀仗에 대한 研究는 후속연구에서 다루기로 하고, 本考에서는 班次圖를 構造的으로 分析하여 發靱班次圖의 特徵을 알아보고 또 하나의 대표적 班次圖인 嘉禮班次圖와 比較하여 그 差異點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國葬都監儀軌의 發靱班次圖 分析

모든 國家的 儀禮를 행하는 儀式에는 반드시 力動的이고 生생한 현장감을 주는 御駕行列이 있게 마련이다.⁸⁾ 이것은 王이나 王世子, 王妃 등이 昇遐한 후 國葬으로 치루어지는 葬禮式에서도 마찬가지로 國葬은 一般的으로 3개월장으로 길게 치루어지는데 하나의 行列圖를 볼 수 있는 것은 發靱時의 運樞 行列이다.

이 發靱班次圖는 發靱하는 班列의 行次로 大辮를 앞뒤로 陪扈하면서 御陵所로 떠나는 行列圖이다. 이 發靱班次圖는 嘉禮班次圖와 마찬가지로 國葬都監儀軌에 같이 添附되어서 생생하게 現存하고 있는데, 죽음에 대한 애도와 엄숙함을 表現해

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發靱班次圖는 실재 儀式을 進行하는 모습처럼 視覺的으로 생생하게 또한 靑색적으로 화려하게 그려져 있다.

國葬都監儀軌는 丙寅洋擾(高宗 3년, 1866)때 프랑스 군대가 奪取해간 것을 제외하고 現存하는 것은 現在 서울대학교 奎章閣과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藏書閣에 保存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壬辰倭亂(1592~1598) 이전 것은 壬亂 때 모두 燒失되어 없어지고 壬辰倭亂 이후 것만 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現存하고 있는 國葬都監儀軌의 具體的인 種類는 다음과 같다(표 1). 現在 전해 지고 있는 40여건의 國葬都監儀軌에 수록된 歷代 發靱班次圖의 全體 構造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가장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時期的으로 前後期 班次圖에 따른다고 할 수 있겠다. 17, 18세기를 前半部, 19, 20세기를 後半部로 나누어 構造的인 면에서 特徵, 差異點을 알아보고자 한다.

前·後半部の 發靱班次圖는 여러 要因에 의하여 차이가 나타나는데, 특히 班次圖에 登場하는 侍衛 軍官, 扈衛兵 등과 行列에 動員된 儀仗面에서 差異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班次圖는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構成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動員된 人物이나 儀仗이 갖게 되는 各各의 位置가 있고 이것이 綜合的으로 하나가 되어 班次圖의 排班圖가 構成되는 것이다.⁹⁾

<표 1>에서 처럼 奎章閣에 現存하는 國葬都監儀軌는 17세기부터 것으로 1608년 宣祖의 國葬을 비롯한 39件 중 王의 葬禮가 12件이고, 1件의 大王大妃의 葬禮를 포함한 王妃의 葬禮가 19件, 世子와 世子嬪의 것이 8件으로 되어 있다.

2) 白英子, 우리나라 鹵簿儀衛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3) 劉頌玉, 朝鮮時代 儀軌圖의 服飾 研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4) 이경자, 嘉禮都監儀軌의 服飾 研究, 복식 창간호, 1977.

5) 白英子, 嘉禮都監을 통해 본 李朝宮中 法服(翟衣)의 變遷, 한국의류학회지 1권2호, 1977.

6) 김혜경, 창덕궁소장 嘉禮班次圖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7) 박성실, 殯殿都監儀軌에 나타난 복식 연구(I), 복식16호, 1991.

8) 白英子, 朝鮮時代의 御駕行列,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4, p.13.

9) 金貞振, 朝鮮時代 嘉禮都監儀軌에 나타난 班次圖의 構造的 研究, 淑明女子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8, p.190.

〈班 1〉 國葬都監儀軌의 種類

番號	世紀	儀 軌 名	王朝年(西紀)	身 分	冊數	班次圖面	規格(cm)	所 藏	備 考
1	17	宣祖國葬都監一·二房儀軌	光海君 1年(1608)	王	1			奎章閣	班次圖 無 興慶園移葬時班次圖
2		元宗祔葬都監儀軌	仁祖 5年(1627)	王(追尊)	1	12	44.4×34.4	奎章閣	
3		宣祖妃仁後后國葬都監儀軌	仁祖 10年(1632)	繼妃	1			奎章閣	班次圖 無
4		昭顯世子禮葬都監都監儀軌	仁祖 23年(1645)	世子	1	24	43.5×30.6	奎章閣·藏書閣	
5		仁祖國葬都監都監儀軌	孝宗即位年(1649)	王	1	30	43.4×33.8	奎章閣·藏書閣	
6		孝宗國葬都監都監儀軌	顯宗即位年(1659)	王	2	26	46.4×34	奎章閣·藏書閣	
7		仁宣王后國葬都監都監儀軌	顯宗 15年(1674)	王妃	3	24	46.9×33.6	奎章閣·藏書閣	
8		顯宗國葬都監都監儀軌	顯宗即位年(1674)	王	2	24	47×35.4	奎章閣	
9		仁敬王后國葬都監都監儀軌	高宗 7年(1681)	王妃	2	24	46.7×35.7	奎章閣·藏書閣	
10		明聖王后國葬都監二房儀軌	高宗 10年(1684)	王妃	1			奎章閣	班次圖 無 班次圖 無
11		仁祖莊烈后國葬都監都監儀軌	高宗 14年(1688)	繼妃	1			奎章閣	
12	18	仁顯王后國葬都監都監儀軌	高宗 27年(1701)	繼妃	2	24	46.2×33.2	奎章閣	
13		端莊嬪禮葬都監儀軌	高宗 44年(1718)	世子嬪	1	22	45.8×34	奎章閣·藏書閣	
14		高宗國葬都監都監儀軌	景宗即位年(1720)	王	2	32	44.3×33.1	奎章閣	
15		景宗國葬都監都監儀軌	英祖即位年(1724)	王	2	32	45×33	奎章閣	
16		孝章世子禮葬都監儀軌	英祖 5年(1729)	世子	1			奎章閣	班次圖 無
17		宣懿王后國葬都監儀軌	英祖 6年(1730)	繼妃	2	48	45.4×33.6	奎章閣	
18		孝純賢嬪禮葬都監儀軌	英祖 27年(1751)	世子嬪	1			奎章閣·藏書閣	班次圖 無
19		貞聖王后國葬都監都監儀軌	英祖 33年(1757)	王妃	2	32	44.8×33.8	奎章閣·藏書閣	
20		仁元王后國葬都監二房儀軌	英祖 33年(1757)	繼妃	1	36	44.9×33.3	奎章閣	
21		恩穆世子禮葬都監都監儀軌	英祖 38年(1762)	世子	2	26	45.3×33	奎章閣	
22		英祖國葬都監都監儀軌	正祖即位年(1776)	王	2	34	44.8×33.4	奎章閣	
23	文孝世子禮葬都監都監儀軌	正祖 10年(1786)	世子	2	36	45.3×33.6	奎章閣·藏書閣		
24	19	正祖國葬都監儀軌	純祖即位年(1800)	王	4	40	45.8×32.7	奎章閣	
25		貞純王后國葬都監康主所儀軌	純祖 5年(1805)	繼妃	4	46	45.7×32	奎章閣	
26		獻敬惠嬪禮葬都監儀軌	純祖 15年(1815)	世子嬪	4	46	45.8×32.8	奎章閣·藏書閣	
27		孝懿王后國葬都監儀軌	純祖 21年(1821)	王妃	4	20	45.3×33.5	奎章閣·藏書閣	
28		顯穆嬪禮葬都監儀軌	純祖 22年(1822)	大王大妃	4	34	45.9×33	奎章閣·藏書閣	
29		孝明世子禮葬都監儀軌	純祖 30年(1830)	世子	4	50	45.6×32.7	奎章閣·藏書閣	
30		純祖大王國葬都監儀軌	憲宗即位年(1834)	王	4	64	45.8×31.8	奎章閣·藏書閣	
31		孝顯王后國葬都監儀軌	憲宗 9年(1843)	王妃	4	52	45.5×31.6	奎章閣·藏書閣	
32		憲宗大王國葬都監儀軌	哲宗即位年(1849)	王	4	68	44.9×31.2	奎章閣·藏書閣	
33		純元王后國葬都監儀軌	哲宗 8年(1857)	王妃	4	64	44.8×31.3	奎章閣	
34		哲宗大王國葬都監儀軌	高宗即位年(1864)	王	4	72	45×32	奎章閣	
35	哲仁王后國葬都監儀軌	高宗 15年(1873)	王妃	4	59	44.6×31.2	奎章閣		
36	神貞王后國葬都監儀軌	高宗 27年(1890)	王妃	4	77	44.8×32.4	奎章閣		
37	明成皇后國葬都監儀軌	高宗 32年(1895)	王妃	5	112	45.8×33.6	奎章閣		
38	20	孝定王后國葬都監儀軌	光武 7年(1903)	繼妃	4	78	44.3×31.7	奎章閣	
39		純明王后國葬都監儀軌	光武 8年(1904)	王妃	4	66	45×32	奎章閣	

23件的 前半部 儀軌들은 거의 1冊이나 2冊으로 比較的 簡略하게 構成되어 있는 반면, 後半部 儀軌들은 모두 4冊으로 構成되어 있어 國葬을 舉行 하는데 있어서 보다 體系의 으로 盛大하게 舉行되었음을 結果의 으로 알 수 있다.

또한 班次圖의 面數를 보면, 前半部 儀軌 中 아 예 彩色畫인 班次圖가 없는 儀軌도 6件이나 되고 班次圖 길이도 後半部 儀軌들보다 매우 짧게 구성

되어 있다. 즉 班次圖의 길이가 後半部로 내려 올 수록 그 길이가 매우 길어지고 있는데, 班次圖 길이가 길다는 것은 發靱時 禮儀와 格式을 갖추어 大饗에 發靱 陪扈하는 人物과 儀仗物이 많이 登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冊數라든가 班次圖 길이가 全般의 으로 時期가 내려올수록 특히 濶平策에 의해 王權이 強化되면서 國葬의 規模가 커졌으며

따라서 記錄이 자세해지고 班次圖도 盛大하게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¹⁰⁾

그러면 前·後半部 發靱班次圖 중 代表的인 班次圖를 기본으로 삼아 나머지 班次圖들의 全體的인 構造를 알아보겠다.

前半部 國葬都監儀軌 23件에 대한 身分을 보면 王이 8件, 世子 및 世子嬪이 6件, 王妃와 繼妃의 國葬이 9件이다. 前半部 國葬都監儀軌를 <表 1>에서 보면 宣祖國葬都監一·二房儀軌(光海君 1년, 1608)와 宣祖妃仁穆后國葬都監儀軌(仁祖 10년, 1632)는 發靱班次圖가 없으며, 후에 王으로 追尊된 元宗禮葬都監儀軌(인조 5년, 1627)는 興慶園으로 移葬時의 班次圖이고, 孝宗即位年인 1649년에 거행된 仁祖國葬都監儀軌에 있는 發靱班次圖에는 동원된 軍兵과 扈衛官 등에 대한 職分과 儀仗物의 구체적 명칭에 대한 記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1659년에 거행된 孝宗의 國葬都監儀軌에 收錄된 發靱班次圖를 基本으로 나머지 班次圖와 比較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孝宗의 國葬都監儀軌에 收錄되어 있는 發靱班次圖의 면수는 26면으로 그 길이는 884cm이다. 全體 班次圖를 3등분하여 서두의식, 중심의식, 마무리의식으로 나누어 보면, 서두의식에서는 當部主簿, 漢城判尹, 大司憲, 兵曹判書 등이 말을 타고 맨 선두에 서고 이어서 左廂軍士, 前射隊軍 등이 서고 이들 좌우에는 捧炬軍이 무수히 서서 햇불로 길안내잡이처럼 흰히 밝히고 있어 死者의 저승길을 편안하게 안내하는 듯하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人物들은 여러가지 儀仗(儀仗旗와 儀仗物)을 든 儀仗手들과 樂器를 들고 있는 鼓吹樂人들과 輦이나 여러가지 輿를 메고가는 捧擔軍들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扈衛兵과 화려한 視覺的 요소인 儀仗, 聽覺的 요소인 樂器들이 先頭를 裝飾하게 된다. 이어서 중심의식의 단계로 葬禮式에 필요한 葬禮用具들인 方相氏, 輓章, 竹散馬,¹¹⁾

竹鞍馬, 靑·紫繡鞍馬 등이 左右로 길안내잡이인 松明炬와 같이 쭉 登場하게 된다. 이어서 가장 중요한 國喪일때만 사용하게 되는 큰 喪輿인 大輿가 나오는데 이 大輿 앞에는 말을 탄 國葬都監官과 小 喪輿인 肩輿와 儀仗物인 羽葆, 死者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旗인 銘旌이 서 있다. 이 큰 상여 옆에는 좌우로 말을 탄 忠贊衛가 鬘種類를 3개씩 들고 있다. 그리고 喪輿 뒤에는 바로 扈衛官과 더불어 말을 탄 哭宮人들이 행유장에 가리워 登場하는데 수 없이 많은 扈衛官과 儀仗手들이 登場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登場하고 있는 女子들은 이 哭宮人 뿐이다. 이렇게 중심의식이 마무리되면 마지막 단계인 마무리의식으로 內侍, 丞旨, 史官들과 더불어 6曹의 堂上官, 東·西班員들에 이어서 弓矢로 武裝한 後射隊將과 더불어 右廂軍士, 後射隊 등이 반차도의 필미를 護衛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다.

發靱班次圖의 構造를 孝宗의 發靱班次圖를 통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 班次圖의 길이를 <표 1>에서 面數를 통해서 보면 王이나 王妃의 것이 비교적 길고 王世子の 것은 더 짧다. 發靱時行列圖가 길어지면 發靱時 動員되는 扈衛官과 儀仗物이 많은 것으로 死者의 身分에 따라 差異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差異가 큰 것은 哭宮人의 數를 보면 王이나 王妃는 거의 20여명의 哭宮人이 動員되고 있는 반면 王世子는 10명 내외일 뿐이다(그림 1). 그리고 큰 喪輿인 大輿의 좌우에 裝飾되고 있는 鬘의 種類가 3種類인데 그 순서가 王이나 王世子는 靛鬘, 黼鬘, 雲鬘¹²⁾의 순서로 되어있는 반면, 王妃는 雲鬘, 黼鬘, 靛鬘의 순서로 되어 있어 差異點을 볼 수 있다(그림 2). 이것의 意味에 대한 深度있는 研究는 지면관계상 후속연구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後半部の 發靱班次圖는 16件的 國葬都監儀軌로 되어있는데 이들은 모두 4冊으로 構成되어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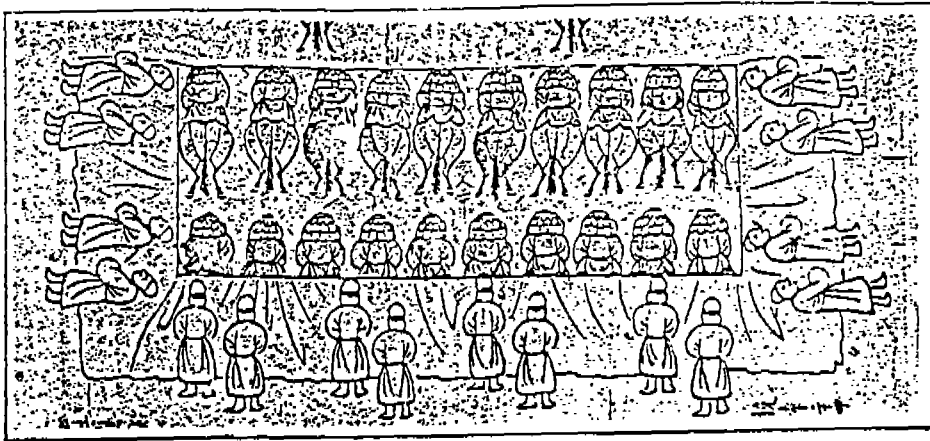
10) 정조국장도감의궤 一(영인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정조국장도감의궤 해제

11) 金貞振, 朝鮮時代 國葬都監儀軌의 班次圖 研究(I), 慶州專門大學 論文集 第9輯, 199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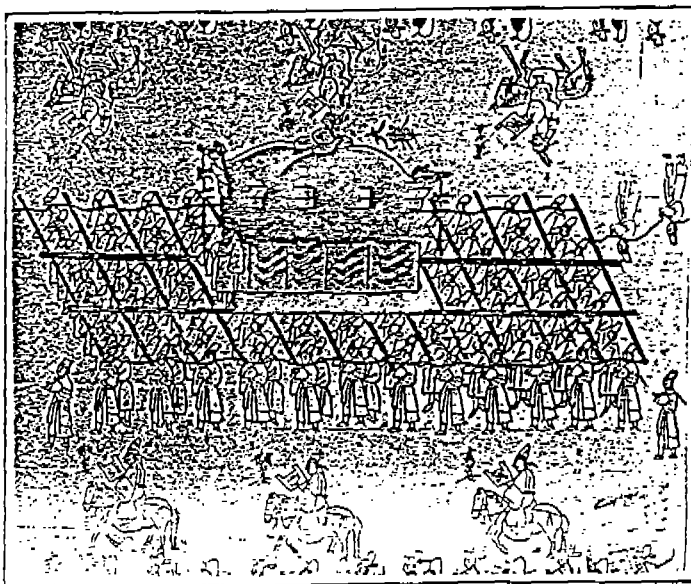
12) 金貞振(1995), p.452 참조

高宗 32년(1895)에 치루어진 明星皇后國葬都監儀軌는 5冊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앞서도 거론되었듯이 高平策에 의해 王權이 強化되어 國葬의 규모가 더욱 커진 一面을 볼 수 있다. 이 儀軌들은 王의 國喪이 4件, 王妃의 葬禮가 9件, 世子, 世子嬪, 大王大妃의 葬禮가 각 1件이다. 이것을 통하여

王家의 結婚觀을 엿볼 수 있는데, 즉 약 100년간 王의 葬禮는 4번 치루어진 반면 王妃의 葬禮는 두배가 넘는 아홉번이나 치루어져 王은 王妃가 먼저 죽게되면 바로 다시 婚姻을 하여 繼妃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哭宮人: 孝宗 發柩班次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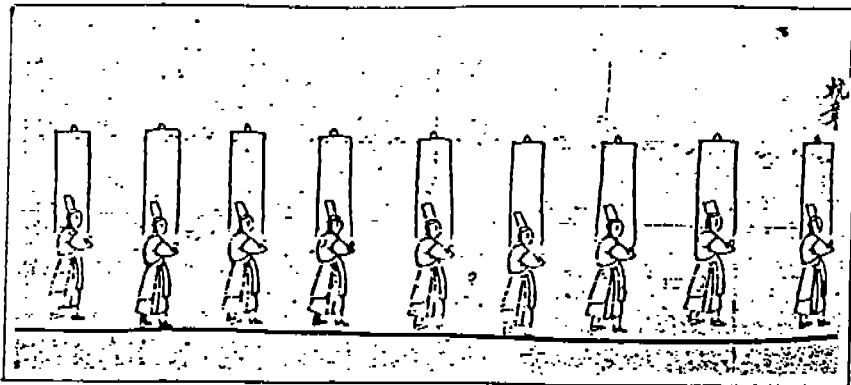
(그림 2) 大輿와 贊類: 正祖 發柩班次圖

後半部の發靱班次圖는 가장 최초의 것인 正祖의 國喪시 있었던 發靱班次圖를 基本으로 班次圖의 構造와 差異點을 알아보겠다. 發靱 行列의 서두의식은 京畿監司, 當部官具, 漢城部郎廳, 禮曹堂上, 戶曹堂上, 大司諫, 大司憲, 兵曹堂上 등이 말을 타고 서면, 뒤이어 400여명의 先廂軍이 육열 종대로 쪽 登場하고 있다. 이어서 各樣各色的 화려한 儀仗이 수를 놓는다. 視覺的인 要素의 조화 속에 聽覺的인 要素인 大角, 中角, 小角과 더불어 金, 鼓 등이 화려한 옷을 입은 樂人에 의해 登場하

는데 이 화려함에 한 몫을 더하는 것은 각종 攀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다. 이렇게 각종 腰攀들이 서두의 후미 부분을 裝飾하고 나면, 중심의식으로 葬禮임을 象徵하는 方相氏가 둘씩 左右로 바뀌가 들 달린 작은 수레위에 앉아 있는데 이들은 창을 들고 있기도 하고 어느 方相氏는 防牌를 들고 있기도 하면서 雜鬼를 쫓아 내므로서 死者의 편안한 저승길이 되도록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그림 3). 이들 뒤로는 수십개의 輓章이 行列圖 左右로 쪽 서서 側陪를 하고 있다(그림 4).



(그림 3) 方相氏 : 孝懿王后 發靱班次圖



(그림 4) 輓章 : 正祖 發靱班次圖

이어서 나타나는 것은 王이나 王妃, 王世子の 葬禮에 쓰이는 제구인 竹散馬, 竹鞍馬, 靑·紫緋鞍馬 등으로 이들과 더불어 小喪輿인 肩輿와 大喪輿인 大輿가 등장하게 된다(그림 2). 大輿 左右

로는 3종류의 삼선이 1쌍씩 3개가 나란히 말을 탄 扈衛衛가 들고 側陪를 하고 있다.

이 喪輿 뒤로는 말을 타거나 그냥 步行하는 扈衛衛官들이 수 없이 뒤따르고 있으며, 유일한 여성

의 身分인 哭宮人들은 행유장에 가리워 진채 말을 타고 뒤따르고 있다. 이 哭宮人의 위치를 보면 國葬의 身分과 관계없이 宣祖國葬都監一·二房儀軌부터 貞純王后國葬都監虞主所儀軌(1805)까지는 大纛 뒤에서 따르고 있는 것에 비하여 獻敬惠嬪喪禮都監儀軌(純祖15년, 1815)부터 純明王后國葬都監儀軌까지는 大纛의 앞에서 哭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哭宮人들의 位置가 1805년을 기점으로 해서 大纛의 뒤에서 앞으로 왜 바뀌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이에 대한 研究는 뒤로 미루기로 하겠다.

이렇게 중심의식의 단계가 끝나면, 마무리의식으로 전반기 發靱班次圖처럼 騎馬의 扈衛官과 東·西班牙員, 步行의 무장 군대가 행렬도의 말미를 마무리 짓고 있다.

發靱班次圖의 이러한 基本 構造는 身分에 상관없이 거의 유사한데 발인반차도의 중심의식에서 반차도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 動員된 扈衛官과 儀仗의 수적인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後半部 중에서도 哲宗大王의 國葬부터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1895년에 행해진 明成皇后의 發靱班次圖는 면수가 112면이나 되어 扈衛官, 儀仗手, 捧擔人 등이 무려 2700여명이나 되고 있어 王妃가 아닌 皇后의 權威가 死後에도 誇示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Ⅲ. 國葬都監儀軌의 發靱班次圖와 嘉禮班次圖의 比較

앞에서 거론되었듯이 王家의 葬禮가 國葬으로 舉行되면서 發靱時 大纛가 御陵所로 떠나는 發靱行列인 發靱班次圖는 수 많은 扈衛官과 儀仗(儀仗旗와 儀仗物), 樂器 등이 수 없이 登場하여 國葬에 대한 엄숙함과 더불어 일대 壯觀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班次圖는 그 時代만이 갖고 있는 風習, 儀禮服, 儀仗, 樂器 등의 制度에 대한 것들을 한 눈에 알 수가 있어 연구의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通過儀禮 중에 하나로 같이 어가행렬의 하나인 嘉禮班次圖라는 것이 있다.

이 嘉禮班次圖는 嘉禮都監儀軌에 收錄되어 있는 것으로 婚禮時 婚禮節次 중 同牢宴을 하기 위하여 詣闕하는 場面이나 王이 王妃집에서 親迎儀를 마치고 王妃를 모시고 還宮하는 場面에 대한 行列圖로 現在 20件的 嘉禮都監儀軌가 奎章閣과 藏書閣에 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內容은 저자의 碩士學位論文으로 대신하고자 하며, 양 반차도의 內容을 구조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보겠다.

御駕行列의 班次圖는 “儀仗을 갖춘 국왕 거등때의 行列”로 그 구성의 기본은 班次圖의 次制와 더불어 그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班次圖의 次制는 일정한 規則性和 形式性을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 동원된 요소는 요소에 따라 선택된 標識物로서의 儀仗(儀仗旗와 儀仗物, 樂器)과 동원된 인물들이 입고 있는 儀禮服으로 구성된다.¹³⁾

따라서 양 반차도의 比較 分析은 次制面에서의 全體的인 構造와 要素面에서의 儀仗(儀仗旗와 儀仗物, 樂器)과 扈衛官과 軍兵, 儀仗手 등 동원된 人物들이 착용하고 있는 儀禮服面에서 비교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1. 全體 構造

白英子(1994)는 御駕行列의 全體的인 構造인 의례의 행위를 준비단계-주목적 수행단계-대답 단계라 하여 실제 어가가 행차하게 되는 주목적 수행단계를 다시 길인도, 분장, 어가행차, 수행행차, 후열행차로 세분하여 자세하게 연구하였으나, 본고에서는 반차도 전체를 의미의 중요성에 따라 서두의식, 중심의식, 마무리의식으로 3등분하여 알아보겠다.

서두의식을 보면 發靱班次圖는 행렬도 좌우로 봉거군이 햇불을 들고 길안내잡이처럼 밝히고 있

13) 백영자(1994), 전계서, p.7.

으며, 중앙에는 여러 官員과 검이나 총으로 무장을 한 先廂軍들이 左廂將과 前射隊將의 인솔아래 수백명씩 등장하고 이어서 중앙에는 銀孟子, 銀湛子, 銀交椅, 脚踏, 青·紅蓋, 紅陽徽, 青·紅扇 등 儀仗物과 大·中·小角, 鼓, 金 등의 樂器가 나오고 좌우로는 여러기치와 의장물로 구성된 의장대열이 쪽 등장하므로써 일대 장관을 이루고 있다.

嘉禮都監儀軌의 嘉禮班次圖는 햇불을 든 봉거군은 보이지 않고 검을 든 砲殺手들이 처음에 등장하고, 救命, 竹冊, 印, 命服腰帶 등이 등장하고 나면, 發鞠班次圖에서처럼 의장대열인 기치와 의장물이 행렬도 좌우로 화려하게 등장하고 있어 기본 백락에서 보았을때 어가행렬이므로 권위와 위엄속에 호위가 목적인 만큼 검이나 총으로 무장한 군들이 등장하고 난 후 어가행렬에 예의를 갖추기 위한 의례적인 면에서 각양각색의 의장기와 의장물이 등장하고 있어 서두의식에서는 유사성을 띄고 있다.

중심의식은 班次圖 대상에 따라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등장하는 부분이므로 중심의식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發鞠班次圖는 魂帛腰帶와 魂帛車, 後部鼓吹, 각종 彩纛가 중앙에 서고 좌우로는 方相氏, 竹散馬, 竹鞍馬, 青·紫繡鞍馬 행렬과 함께 挽章이 쪽 등장하고 있어 葬禮行列의 의미를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이어서 肩纛, 羽葆, 銘旌과 銘旌機가 등장하면 바로 大纛가 수백명의 纛士軍에 의해 등장한다. 大纛 좌우로는 세 종류의 삽을 든 騎馬의 忠贊衛가 측배를 하고 있으며 다시 대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 장막이 좌우로 서 있다. 大纛 다음에는 葬禮를 애도하는 哭宮人 행렬이 행유장에 가리워 등장하고 좌우로는 다시 挽章이 등장하므로써 중심의식을 마무리 짓고 있다.

이렇게 發鞠班次圖는 중심의식의 단계에서 장례의 象徴的 意味를 내포한 여러가지들이 등장함에 비해 嘉禮班次圖는 嘉禮의 특별한 특징이 없는 듯하다. 嘉禮班次圖를 보면 嘉禮班次圖는 嘉禮 內容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嘉禮儀式인 六禮(納采, 納徵, 告期, 冊妃, 親迎儀, 同牢) 절차 중

親迎儀를 치르는 嘉禮班次圖는 왕이 왕비집에서 親迎儀를 마치고 왕비를 데리고 환궁하는 장면이므로 왕과 왕비의 輦 두개가 등장함에 비하여 同牢宴을 치르기 위한 내용의 嘉禮班次圖는 王妃나 王世子嬪이 별궁에서 어전으로 시위를 받으며 입궐하는 장면이므로 하나의 연만이 등장하고 있다. 하나의 輦이 등장하는 두개의 輦이 등장하는 혼례임을 표현하는 어떤 특징적인 어가행렬의 요소들이 없는 상태로 호위관만이 전후 좌우로 등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의식을 보면 發鞠班次圖는 承旨, 軍官, 摠護使, 殯殿都監堂上, 國葬都監堂上, 郎廳, 尙衣院 등이 모두 기마상태로 중앙에서 등장하면서 大纛의 뒤를 따르고 있으며 좌우로는 역시 말을 탄 東·西班員이 등장하며, 마지막으로 서두의식에서처럼 검을 든 後射隊軍, 右廂軍使 등이 後射隊將, 右廂將의 인솔아래 마무리를 짓고 있음에 비해, 嘉禮班次圖는 輦이 지나간 뒤를 이어 侍女, 醫女, 都提調, 都廳, 郎廳, 哨官 등이 말을 타거나 보행 상태로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앞부분처럼 검을 든 砲殺手들이 종대로 줄을 서서 등장하며 마무리 짓고 있다.

이 마무리의식 역시 서두의식에서처럼 양 반차도는 비교적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다만 등장하는 인물의 직분만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2. 儀仗

양 班次圖에 의례적인 면에서 등장하는 儀仗은 의장대열과 그의 의장으로 구분되며 다시 儀仗旗와 儀仗物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視覺的인 요소와 더불어 조화로운 것은 聽覺的인 요소이므로 여기에 동원된 樂器도 함께 대상별로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發鞠班次圖의 儀仗

① 王

· 儀仗隊列: 紅門大旗, 朱雀旗, 青龍旗, 白虎旗,

玄武旗，丁丑旗，丁亥旗，丁酉旗，丁卯旗，丁未旗，丁巳旗，白澤旗，三角旗，角端旗，龍馬旗，玄鶴旗，白鶴旗，令字旗，金字旗，鼓字旗，豹骨朵，熊骨朵，哥舒棒，金·銀鐙子，金·銀立瓜，金·銀粧刀，金·銀橫瓜，金·銀斫子，白虎幢，玄武幢，朱雀幢，青龍幢，罕，旄節，旌，金·銀鉞斧，鳳扇，雀扇，龍扇

· 二斗 儀仗：黃龍旗，天下太平旗，駕龜仙人旗，碧鳳旗，君王千歲旗，玄武旗，後殿大旗，朱雀旗，認旗，門旗，高招旗，塘報旗，隊將旗，旗總旗，令旗，藍神旗，紅神旗，白神旗，黑神旗，青·紅蓋，青·紅陽徽，銀交椅，銀灌子，銀·紅腳踏，銀孟子，排案床，馬机，金鉞斧，水晶杖，青扇，敲髮，雲髮，鬪髮，挽章，羽葆，銘旌，紅日傘，青·紅·白燭籠，朱漆交椅，雲劍，長足兒，香座兒，靈佐交椅，棍杖，朱杖，素蓋，素扇

· 樂器：大角，中角，小角，金，鼓，前部鼓吹，後部鼓吹

② 王妃(繼妃，大王大妃)

儀仗隊列：白澤旗，金·銀鐙子，金·銀粧刀，金·銀立瓜，金·銀橫瓜，旄節，金·銀鉞斧，雀扇，朱畫圓扇

· 二斗 儀仗：銘旌，高哨旗，塘報旗，前哨認旗，千總認旗，隊將旗，藍神旗，巡視旗，令旗，旗總旗，左哨認旗，右哨認旗，紅神旗，後哨認旗，把摠認旗，白神旗，黑神旗，朱杖，銀孟子，銀灌子，銀交椅，腳踏，散扇，素蓋，素扇，青扇，青·紅蓋，紅陽傘，馬机，羽葆，敲髮，鬪髮，雲髮，挽章，青·紅·白燭籠，紅杖，雲劍，長足兒，香座兒，排案床，讀冊床，傍挾床，魂帛交椅

· 樂器：前部鼓吹，後部鼓吹

③ 皇后

· 儀仗隊列：青龍旗，龍鳳旗，儀刀，弓弓，骨朵，烏杖，鸞鳳扇，龍鳳扇，戟斨，戈斨，儀銳斨，班劍，金鉞，立·臥瓜，絳引旛，信旛，傳教旛，告止旛，龍頭竿纒斨，羽葆幢，紅繡方扇，青繡圓扇，紅圓傘，青方傘

· 二斗 儀仗：紫方傘，紅方傘，響節，金節，九鳳曲

蓋，九鳳蓋，紅繡花圓扇，青繡方傘，黃羅來圓扇，紅羅素圓扇，金交椅，金腳踏，金馬机，方几，大·小水瓶，盥盒，盤，金唾壺，金唾盂，佛子，紅繡傘，華蓋，紅紗燈籠，雲劍，紅陽徽，靈佐交椅，傍挾床，黃磨，排案床，素蓋，素扇，銘旌，挽章，雲髮，鬪髮，敲髮，長足兒，香足兒，香

④ 世子

· 儀仗隊列：麒麟旗，白澤旗，玄鶴旗，令字旗，駕龜仙人旗，白鶴旗，豹骨朵，金·銀鐙子，金·銀粧刀，旄節，金·銀立瓜，旌，雀扇

· 二斗 儀仗：烏杖，青·紅蓋，青·紅·白燭籠，馬机，青陽徽，青扇，挽章，羽葆，銘旌，香座兒，長足兒，敲髮，鬪髮，雲髮，排案床，銀交椅，腳踏，魂帛交椅，傍挾床

· 樂器：金，鼓

⑤ 世子嬪

· 儀仗隊列：白澤旗，銀鐙子，銀粧刀，銀立瓜，銀橫瓜，旄節，雀扇，鳳扇

· 二斗 儀仗：青·紅蓋，銀腳踏，銀交椅，青陽徽，馬机，青·紅·白燭籠，青扇，挽章，銘旌，羽葆，機，香座兒，長足兒，敲髮，鬪髮，雲髮，素扇，素蓋，靈座交椅，傍挾床，青散扇

(2) 嘉禮班次圖斗 儀仗

① 王

· 儀仗隊列：紅門大旗，白虎旗，朱雀旗，玄武旗，青龍旗，丁丑旗，丁未旗，丁巳旗，丁亥旗，丁卯旗，丁酉旗，白澤旗，白鶴旗，三角旗，角端旗，龍馬旗，令字旗，鼓字旗，豹骨朵，熊骨朵，架舒棒，金·銀鐙子，金·銀粧刀，玄武幢，朱雀幢，白虎幢，青龍幢，金·銀立瓜，金·銀橫瓜，金·銀斫子，罕，畢，旌，旄節，金·銀鉞斧，鳳扇，雀扇，龍扇

· 二斗 儀仗：認旗，神旗，令旗，塘報旗，高哨旗，旗總旗，清道旗，白虎旗，朱雀旗，玄武旗，青龍旗，騰蛇旗，黃門旗，角旗，豹尾旗，金鼓旗，巡視旗，大旗，蛟龍旗，黃龍旗，碧鳳旗，駕龜仙人旗，君王千歲旗，天下太平旗，後殿大旗，門旗，標旗，

白神旗, 紅神旗, 黃神旗, 藍神旗, 紅色旗, 藍色旗, 白色旗

· 樂器 : 金, 鼓, 前部鼓吹, 後部鼓吹

② 王世子

· 儀仗隊列 : 麒麟旗, 白澤旗, 玄武旗, 令字旗, 豹骨朶, 熊骨朶, 金·銀鐙子, 銀粧刀, 旌節, 金立瓜, 雀扇, 旌

· 그의 儀仗 : 塘報旗, 高哨旗, 哨官認旗, 認旗, 千總認旗, 巡視旗, 令旗, 藍色旗, 旗總旗, 駕龜仙人旗, 把總認旗, 神旗, 黃色旗, 白色旗, 青蓋, 陽徽, 鉞刀, 日傘, 捧燭, 등채, 傘扇, 褥席, 排案床, 紅案床, 烏杖, 銃, 棍杖, 朱杖

· 樂器 : 號笛, 자마라, 바라, 喇叭

③ 王世孫

· 儀仗隊列 : 白澤旗, 金·銀鐙子, 金·銀粧刀, 金·銀立瓜, 旌節, 雀扇, 青蓋

· 그의 儀仗 : 紅色旗, 高招旗, 黃色旗, 排案床, 青扇, 銃, 青陽徽, 烏杖, 捧燭, 戴函, 負函

④ 皇太子

· 儀仗隊列 : 鳳旗, 吾杖, 紅繡方扇, 青繡圓扇, 紅圓扇, 紅方散, 立瓜, 臥瓜

· 그의 儀仗 : 大隊旗, 中隊旗, 武藝廳門旗, 門旗, 金節, 七鳳蓋, 方机, 金·銀交椅, 金·銀脚踏, 水瓶, 盥盤, 唾壺, 佛塵, 紅蓋, 褥席, 捧炬, 讀冊案床, 排案床, 讀寶床, 陽徽, 戴函, 負函, 捧燭, 戴番, 散扇, 銃, 劔

위와 같이 살펴본 儀仗을 보면 양 班次圖 모두 班次圖의 대상에 따라 儀仗의 수가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王에서 王妃, 世子, 世子嬪으로 갈수록 적은 수의 儀仗이 동원되고 있었다.

의장대열에서 王의 경우는 嘉禮나 發靱時 모두 매우 많은 종류의 儀仗旗와 儀仗物이 동원되고 있음에 비해 世子나 世孫의 경우 적은 儀仗이 동원되었고, 특히 麒麟旗의 경우는 원래 高麗時代의 儀仗旗가 계속 사용되고 있는 旗幟인데 양 班次圖에서는 모두 世子的 경우만 사용되고 있어 특이한

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의 儀仗에서는 皇后, 世子, 世子嬪의 發靱班次圖 경우 旗幟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으며, 儀仗物은 주로 용구들이 차지하므로 대상에 따라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양 班次圖에서 高宗이 皇帝로 즉위한 후에 거행된 班次圖에서는 明의 大明集禮에 의거한 儀仗物로 대치되었음을 볼 수 있다.

3. 儀禮服

政治적이고 國家的인 儀式에 사용되는 儀禮服 역시 한 사회의 象徵의 表現으로, 그 기능은 儀禮服의 형태와 색채가 비일상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¹⁴⁾ 班次圖에 동원된 人物들로는 크게 扈衛軍官, 儀仗手, 樂人, 糞士軍 등으로 분류를 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본 고에서는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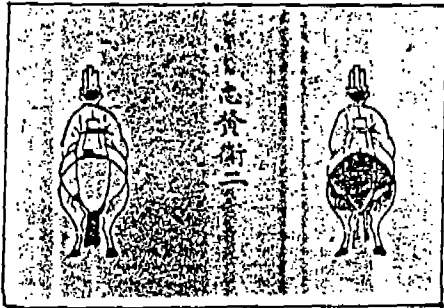
發靱班次圖에서 볼 수 있는 儀禮服은 葬禮인 만큼 애도와 儀禮의인 측면에서의 喪服과 손에 儀仗이나 葬禮用具 등을 들고 가야 하므로 기능성이 강조된 의복으로 양분되고 있다. 비교적 직분이 높아 보이는 扈衛軍官들은 거의 말을 탄 상태로 喪服인 衰衣와 喪冠을 쓰고 首經까지 갖추어 착용한 모습(그림 5)을 볼 수 있음에 반해 儀仗手, 樂工, 捧擔人 등은 衣服의 형태면에서는 매우 간단해 보이는 紅巾에 紅衣, 전립에 창옷, 더그레를 착용하고 있지만 이것들은 색상에서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國葬의 슬픈 분위기와는 거리가 먼듯 빨강, 노랑 등의 원색으로 치장이 되어 애도의 엄숙한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화려함을 한껏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葬禮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肩擔, 大糞의 糞士軍, 葬禮用具를 들고가는 銘旌手, 挽章手 등은 죽음을 상징하는 흰색의 포와 건, 행전의 차림새를 하고 있다(그림 4).

14) 白英子(1994), 전게서, p.9.

이러한 服飾의 형태는 1608년에 거행된 宣祖國葬都監一房儀軌부터 高宗 15년(1878)에 거행된 哲仁王后國葬都監儀軌까지 거의 유사하게 일관되고 있음에 반해 高宗 27년(1890)에 거행된 神貞王后國葬都監儀軌부터는 開化期의 격변하는 사회 모습이 잘 반영되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西洋式 帽子和 洋服의 착용이다. 이 洋帽과 洋服을 착용한 직급은 주로 警務官이나 先射隊, 後射隊, 警務廳巡檢, 侍衛隊 兵丁 등 扈衛軍官이 대부분으로 警務服과 軍服이 西洋式으로 일찌부터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嘉禮班次圖에서의 儀禮服은 화려한 梁冠과 朝服, 紗帽와 團領, 투구와 갑옷 등으로 주로 직분이 높은 騎馬人에서 볼 수 있으며, 보행의 扈衛人이나 儀仗手와 봉담인의 복식은 역시 흥건-흥의(청건-청의), 전립에 창옷, 더그레, 쇠가래에 첩리, 반비의 등이 대부분이다.



(그림 5) 男子 喪服 : 孝顯王后 發靱班次圖

鼓吹樂人의 服飾은 양 반차도 모두 흑색의 복두에 홍색 단령을 착용하고 있어 조선 중후기에 樂工의 服飾은 형제의 변화없이 일관성있게 착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가행렬에 동원된 女子의 服飾을 보면 嘉禮班次圖에서는 醫女, 騎行內人, 尙宮, 侍女, 香差備 등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복장은 너울

(醫女는 전모)을 쓰고 저고리 치마를 착용하여 너울의 크기와 저고리 소매의 광범, 저고리 길이의 장단을 알 수 있음에 비해 發靱班次圖에서는 哭宮人으로 유일하게 여성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차림새는 여자 상복인 大袖長裙을 입고 머리에는 蓋巾을 쓰고서 모두 말을 타고 行帷帳에 가리워 진새 따르고 있다(그림 1).

IV. 結 論

이제까지 奎章閣에 現存하고 있는 40여건의 發靱班次圖를 構造의으로 分析하여 班次圖의 構成內容을 알아보았고 더 나아가서 發靱班次圖와 嘉禮班次圖를 比較하여 보았다.

發靱班次圖의 構成은 서두의식, 중심의식, 마무리의식의 3단계 의식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는데, 그 특징은 중심의식의 단계에서 장례의 행렬도임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전체구조는 時期와 國葬의 대상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嘉禮班次圖와의 比較에서는 全體構造, 儀仗, 儀禮服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는데, 全體의인 構造는 3단계의 의식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서두의식과 마무리의식은 별 차이 없이 양 반차도가 유사한 반면, 중심의식에서는 각 반차도 별로 특징을 갖고 있었다. 즉 發靱班次圖는 葬禮 用具와 大·小喪擡 등이 질서정연하게 등장하는 반면, 嘉禮班次圖는 嘉禮 對象과 內容에 따라 王이나 王妃, 世子 등의 輩이 등장하고 있었다.

儀仗面에서 보면 양 반차도 모두 對象別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王의 國葬의 發靱時나 嘉禮때는 조선조 초기에 제도적으로 정비된 가장 많은 의장들이 그대로 다양하게 사용된 반면 왕비, 세자, 세자빈 순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또한 明成皇后發靱班次圖(1895), 純明王后發靱班次圖(1904), 純宗純宗妃嘉禮班次圖(1906)에는 高宗이 皇帝에 오른후의 班次圖이므로 이 儀仗들은 明의 大明集禮에 준하여 만들어진 儀仗物들이 등장하

고 있었다.

儀禮服面에서의 特徵은 騎馬의 직분이 높은 호위군관의 경우 發靱時에는 喪服을 갖추어 착용하였으나, 嘉禮時에는 사모·단령, 양관·조복을 착용하여 차이를 나타낸 반면, 의장수, 봉담인, 고취악인 등의 복식은 거의 차이가 없었고, 예외로 葬禮用具나 大擡 등 葬禮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봉담인은 喪服의 상징색인 백색의 견과 포를 착용하고 행전을 한 모습이었다. 또한 개화기 이후에 거행된 양 반차도에서는 군복이 양모와 양복으로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본고는 國葬都監儀軌의 發靱班次圖 자체만을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알아보았을뿐, 班次圖·構造의 보완 연구와 더불어 班次圖에 나타난 服飾과 儀仗에 대한 것과 國·喪禮의 象徵의 意味에 대한 研究는 후속연구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參考文獻

- 正祖國葬都監儀軌 外 38種의 國·禮葬都監儀軌, 서울대학교 奎章閣 圖書
- 國朝五禮儀(4), 法制處, 1982
-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史部 1, 서울대학교 奎章閣, 1993
- 國立民俗博物館, 韓國 喪葬禮, 미진사, 1990
- 김용덕, 韓國의 風俗史, 밀알, 1994
- 朴炳善 編著, 朝鮮朝의 儀軌, 韓國情神文化研究院, 1985
- 白英子, 朝鮮時代의 御駕行列, 韓國放送通信大學校出版部, 1994
- 임제해, 傳統喪禮, 대원사, 1990
- 李善宰, 儒敎思想과 儀禮服, 亞細亞文化社, 1992
- 李熙昇 編著, 國語大辭典, 民衆書林, 1970
- 張哲秀, 韓國의 冠婚喪祭, 집문당, 1995

ABSTRACT

A Study of Structure through the Banchado in the Kookjangdogameuigue of the Yi dynasty(II)

This study investigate through the Balinbanchado in the Kookjangdogameuigue, how the system of Banchado ceremony exchanged during the middle, late the Yi dynasty and in the period of introducing Western civilization. The Balinbanchado is carry a coffin out of the house to the royal mausoleum.

The characteristic in the general structure share Banchado with rites of introduction, rites of center and rites of finishing. Balinbanchado varies according to the objects and the times of a state funeral.

In comparsion with Karaebanchado, there are investigate the general structure, ceremonial arms and ceremonial costumes. The special feature of two banchado varies rites of center among rites of three. In the ceremonial arms aspect, the characteristic of two banchado differ from the objects and the times. In the ceremonial costumes, the peculiarity of two banchado can be divided into the guard costumes and the ceremonial arm costumes. The most formal attire of the guard costumes were murning dress(Balinbanchado) and yangkwan-chobok and samo-danryeong(Karaebanchado). In the ceremonial arm costumes, the most outstanding was hongkun-honggeui, baikun-baikeui in two banchado.